

청소년 인구 37년째 내리막길...40년 후 '반토막' 수준

통계청, 2019 청소년 통계 발표

학령인구 804만명...10년 후 180만명 감소
 다문화 학생 12만명...전년보다 11.7% 증가
 20~24세 평균 186만원...25~29세 235만원

올해 청소년 인구(9~24세)는 876만5000명으로 1982년 정점을 찍은 후 37년째 내리막 추세를 나타냈다. 25년 후인 2054년에는 5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올해 5170만9000명으로 2028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청소년 인구는 87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남자 457만9000명(52.2%), 여자 418만 6000명(47.8%)으로 남자의 구성비가 4.4%p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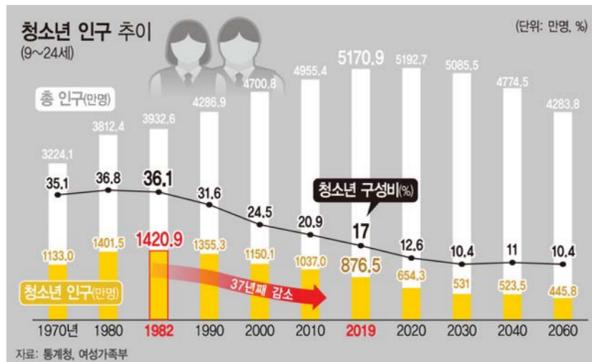
청소년 인구는 1982년 1420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계속 감소해 2014년 985만9000명으로 집계되는 등 10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2060년에는 445만8000명으로 지금의 반 토막 수준이 될 거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올해 17.0%였던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60년에는 10.4%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학령인구(6~21세)는 804만7000명으로 총인구의 15.6%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9년에는 624만9000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18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학령인구는 1980년 1440만1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995만명으로 집계,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2015년에는 499만 4000명까지 내려갔을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 구성비는 1970년 17.7%에서 2019년 5.3%로 12.4%p나 감소해 다른 학령연령대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1970년 대비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 구성비는 5.5%p,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 구성비는 3.7%p,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 구성비는 2.0%p 감소했다.

지난해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1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했다. 초등학교 비중은 76.1%(9만3027명), 중학생 14.8%(1만8068명), 고등학생 8.7%(1만688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아울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7%로 전년보다 0.6%p 증가했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15~24세 26.2%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한 반면 25~29세는 70.2%로 전년 대비 1.5%p 늘어났다.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다. 15~24세는 10.5%로 전년보다 0.2%p 증가했으나 25~29세는 8.8%로 전년보다 0.7%p 줄었다.

지난해 20~29세 취업자 수는 36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 증가했고 부모세대인 50~59세는 634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4000명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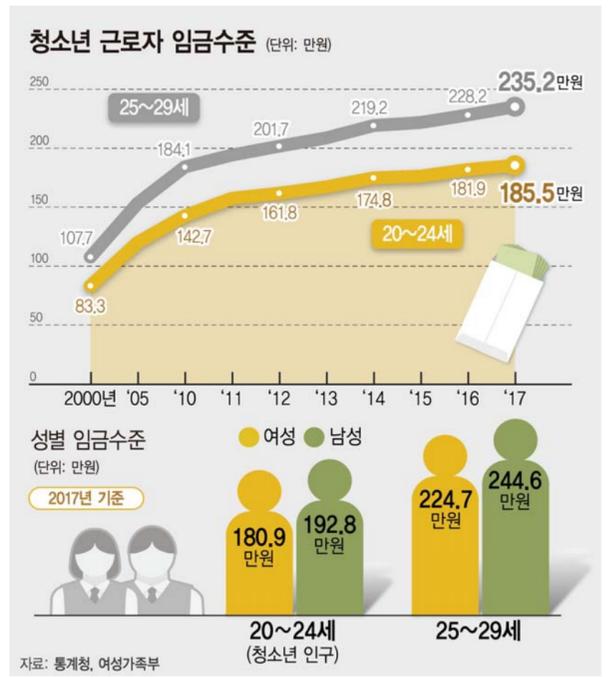
자식세대(20대)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8.7%), 사무종사자(24.0%), 서비스종사자(14.8%)가 뒤따랐다. 부모세대(50대)는 집사·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4.9%), 단순노무종사자(14.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3.6%) 순이었다.

청년층의 주된 취업 경로는 신문·잡지·인터넷 등 응모가 30.3%로 가장 많았으며 공개채용시험(20.8%), 가족·친지 소개(18.7%)가 뒤따랐다. 고졸 이하는 신문·잡지·인터넷 등 응모가 36.5%, 대졸 이상은 공개채용시험이 29.9%로 가장 높았다.

2017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중 20~24세 평균임금은 185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0% 올랐다. 25~29세는 235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평균 임금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20~24세 임금 상승률은 남자가 3.5%, 여자가 0.8%였다. 25~29세에서도 남성의 임금 상승률(3.4%)이 여성(2.7%)보다 높았다. 학력별로는 20~24세의 경우 대졸이 상(5.3%), 25~29세는 전문대졸(3.9%)에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지난해 중·고등학생의 9.0%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16년(11.3%)에 비해 2.3%p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식당·레스토랑(45.9%)이나 뷔페·웨딩홀·연회장(14.1%) 등 주로 서빙이나 주방업종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았다.

중·고등학생 중 남자(8.7%)보다 여자(9.4%)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더 많았다.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15.0%)이 중학생(1.8%)보다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 전단지 배포(29.9%)가 고등학생(5.5%)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2.7일이었으며 일일 근로시간은 6.2시간, 시급은 7785원이었다.

청소년 건강 통계



사망원인 11년째 1위 '자살'...학년 올라갈수록 우울감 ↑

우리나라 청소년은 11년째 '자살'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24세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7.7명이 고의적 자해, 즉 자살로 사망

했다. 운수사고(3.4명)와 암 등 악성 신생물(2.7명)이 그 뒤를 이었다. 자살은 2007년부터 11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전년 대비 소폭(0.1명) 감소했다.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정점을 찍은 시기는 2009년(10.3명)이었다

같은 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명 중 한 명(25.1%)이 우울감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우울감이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것을 의미한다. 1년 후인 지난해에는 우울감 경험률

학생보다 많았는데 지난해 뒤집혔다. 13~18세 청소년은 여전히 공부(47.3%)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았지만, 19~24세 청소년 중에선 45.1%가 직업을 꼽았다. 남자는 공부(31.0%)를 최우선 고민거리로 꼽은 반면 여자는 직업(31.7%)을 꼽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기준 청소년의 25.0%가 비만군에 속했다. 과체중이 10.6% 비만이 14.4%였다. 전년(23.9%)보다 1.1%p 오른 것으로 청소년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단맛음료 등의 섭취율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남학생이 29.1%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 남학생(26.8%), 중학교 남학생(26.7%), 고등학교 여학생(25.1%), 중학교 여학생(22.4%), 초등학교 여학생(2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우울감·스트레스 높아 '공부'보다 '직업' 고민거리로 꼽는 학생 늘어

했다. 운수사고(3.4명)와 암 등 악성 신생물(2.7명)이 그 뒤를 이었다. 자살은 2007년부터 11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전년 대비 소폭(0.1명) 감소했다.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정점을 찍은 시기는 2009년(10.3명)이었다

이 27.1%로 2.0%p 높아졌다. 모든 학년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높았다. 중학생(25.2%)보다 고등학생(28.7%)의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감 경험률도 높아졌다. 특히 여

학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생(27.8%)을 제외하면 모든 학년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30%를 웃돌았다. 고등학교 3학년에선 이 비율이 36.6%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13~24세 청소년 중 45.0%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4.3%는 직장생활에서, 51.8%는 학교생활에서, 29.8%는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13~18세는 학교생활에서, 19~24세는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중 30.2%가 직업을 가장 고민하는 문제로 꼽았다. 공부(29.6%)와 외모(10.9%)가 그 뒤를 이었다. 2년 전만 해도 공부(32.9%)를 꼽는 학생이 직업(28.9%)을 꼽는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